

2025년 2월 16일 “(주님을 아는 지식 7) 그리스도가 마음에 머물게 하소서”(엡 3:16-19)

바울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신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나의 영과 연합하여 주십니다(롬 8:17). 새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연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성령님(과 그리스도)이 나와 관계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14~22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계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우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문밖으로 밀려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 성도이지만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 밖에 밀어내고도 신앙으로 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우들처럼 신앙여정의 한 단계를 은혜롭게 지나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좋은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머무시도록 나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2] 출애굽 세대 - 필요한 믿음

그들의 여정의 단계마다 믿음의 다른 양상이 요구됩니다.

이집트를 떠난 후 홍해 바다 앞에서 요구된 것은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출 14:13).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는 경이로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과 음식의 부족으로 불안이 극심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당신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 버티고 참아내는 모습과는 달리 국가적 전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에서 요구된 믿음의 태도와 양상은 모두 달랐습니다. 결국, 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는 초기 신앙의 은혜로웠던 경험이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머무셔서 그분의 뜻과 방식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고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닥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문 밖에 거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적 교훈

코로나가 위협할 때 '흠어져라'는 지침에 거부하며 세상과 정부에 표피적인 맞대응으로 호전적 모습을 취했던 일부 교회의 모습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가만히 바라보며 기다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든지, 광야에서 하루하루 버텼던 것처럼 온라인 도움이나 개인 묵상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든지 하였다면 세상은 교회를 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나안을 얻기 위해 전쟁을 결단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동기와 방식과 목적을 개혁하고 주님 주신 유업을 얻어내겠다는 영적전사의 자세로 나갔다면 나와 공동체에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무르실 때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지식으로부터 오며,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얻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때, 우리는 한층 평안과 견고한 마음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 계심으로 자신과 교회가 이 믿음의 진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을 지나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요구된 믿음의 행동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삶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와 행동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까? ([3] 내용 참고)